



## 機械工業은 繼續

## 育成되어야 한다

會長 俞炳澈

〈高麗大 工大 教授·工博〉

最近世界的인 오일 쇼크에 겹쳐서 激變하는 國內諸情勢로 因하여 國內 機械工業이 전반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 停滯 또는 위축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비단 필자 한 사람만의 忏憂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食糧의 自給自足도 불가능한 형편으로 이제 農業國으로 되돌아 갈 수도 없는 처지이며 工業化만이 다른 대案이 없는 唯一한 活路임은 再論의 餘地가 없는事實이다. 그러나 工業化라는 우리 國民의 宿願은 賦存資源이 不足하고 傳來의 農業國으로서 工業技術의 蕩積이 없는 우리의 형편으로서는 힘에 겨운 大課業이며, 舉國的으로 모든 힘을 傾注하여도 先進國과의 技術隔差를 좁히고 國際舞臺에서 어깨를 나란히하여 競爭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瞬時의 停滯도 許容될 수 없으며 끊임없는 꾸준한 努力이 持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工業化에 있어서 그 中樞役割을 하는 機械工業은 그것이 企業으로서의 確固한 基盤을 닦고 國際競爭力を 갖게 되기까지는 겪어야 할段階를 모두 거쳐야 하며, 他工業에 比하여 莫大한 投資의 繼續支出이 요구되는 반면에 投資效果나 發展速度가 느리기 때문에 育成하고 發展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產業이다. 그러나 그 發展 없이는 工業化란 한낱의 口頭禪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 國民의 生活을 찾기 위하여 기필코 達成하여야 할 國民的 至上課題이다.

其間 우리는 뒤늦게나마 機械工業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그 育成을 위하여 많은 投資와 努力を 傾注하여 왔으며, 우리의 機械工業은 이제 겨우 거를마를 시작한 상태에 있다. 물론 그동안에

無經驗으로 인한 시행착오나 性急하게 成果를 기대한 나머지 砂上에 樓閣을 구축함과 같은 謬를 犯한 일이 全無하였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機械工業의 育成發展이라는 目標設定은 철관번至當한 것이었다.

우리의 모든 힘을 傾注하여도 先進國隊列에 따라붙기까지는 許多한 難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雪上加霜으로 오일 쇼크나 國內諸事情이 얹혀 우리 機械工業의 育成發展을 잠시라도 가로막는다면 우리의 機械工業은 영영이 땅에 발을 붙이기가 어려울 것이며, 지금까지의 努力과 莫大한 投資가 水泡로 돌아갈 염려도 있지 않을 것이다.

機械工業에는 奇蹟이 없다. 차근차근히 基礎를 다져면서 技術을 蕩積하고 꾸준히 努力하여야 하며, 금시발복으로 短時日 내에 成果를 거둘 것을 기대하여서는 않된다. 다만 거쳐야 할段階를 얼마나 빨리 短縮해서 통과하고, 先進國과의 隔差를 좁혀가느냐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지로서는 現時點에서 暫時의 停滯도 許容될 수 없다. 科學技術이 日進月步하는 요사이 1~2年의 停滯는 過去 數十年의 停滯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最近의 심각한 國內外의 難局에 대처하여 政策樹立者, 企業人, 技術人 모두 遠大한 眼目과 使命感을 가지고 一致協力하여 추호도 좌고 우연함이 없이 더욱 굳은 決意와 覺悟로서 이 難局을 슬기롭게 打開하여 이땅에 機械工業을 確立하고 工業國家를 建設하는데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